"학습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았던" 중1 학생, 교사가 AI로 '다시 볼 곳'을 찾다 — 공식 가이드북 × 제미나이 스킬 × 노트북의 블루스팟 수업 준비법

블로그: https://blog.naver.com/glow_you/224455814602



한눈에 보는 사례

문제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의 집중도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교사인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느꼈어요.
AI 활용 목적	교사가 정답을 받는 게 아니라, 공식 자료를 근거로 '내 생각에서 다시 볼 곳(블루스팟)'을 받아 수업 준비를 스스로 판단하기.
AI 도구와 역할	제미나이 '스킬'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이드북의 자기주도 학습 장을 넣은 맞춤 지침으로 블루스팟 3곳과 근거 쪽수 제시 / Gemini Notebook — 같은 자료로 교사용 오디오·수업 브리핑 보고서·퀴즈·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복습.
결과	블루스팟 3곳 모두 자료 이름과 쪽수 표시, 원문 대조로 쪽수 일치 확인. AI가 원문을 요약해 따옴표로 붙인 문장과 AI 해석도 가려냄. 노트북 2차 콘텐츠 4종 제작.

변화	실제로 제미나이를 통해 블루스팟을 찾았고, 그 뒤 학생은 스스로 고민하는 행동을 했어요. 교사의 생각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에서 '내가 다 시키지 않아도 학생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재현성·확산	무료로 시작, 컴퓨터에서 10분이면 스킬 완성. 자료만 바꾸면 학년·과목이 다른 교사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학부모온누리 가이드북은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7권이에요.
윤리·책임	공식 자료만 근거로, 출처·쪽수 표시, 학생 개인정보 미입력, AI 요약·해석과 원문을 구분해 확인, AI 사용 표시.

왜 '정답'이 아니라 '블루스팟'인가

AI에게 "집중 못 하는 중1 학생, 어떻게 가르쳐야 해요?"라고 물으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 답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출처를 모르는 답을 그대로 따라 하면,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에게 맞는지 가려낼 힘이 교사에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 보세요. 믿을 만한 자료는 교사가 직접 고르고, 내 생각과 학생의 상황은 교사가 먼저 써요. AI는 그 자료 안에서만 '다시 볼 곳'과 '다른 각도'를 짚어 줘요. 수업의 운전대는 교사가 쥐어요.



블루스팟 공부법 — 자료는 교사가, 생각도 교사가, AI는 다시 볼 곳만

출발점 — 바둑 AI에서 얻은 실마리

시대가 변했어요. 바둑계도 달라지고 있어요. 『먼저 온 미래』를 읽으며, 바둑 기사들이 AI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에서 실마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만의 AI 공부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제가 가르치던 학생 일에 써 보았어요.

문제와 변화 — 중1, 집중과 학습능력이 함께 떨어졌어요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은 실제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교사가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낄 때, AI에게 정답을 맡기면 판단까지 맡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했어요. 제 생각을 먼저 적고, 믿을 수 있는 공식 자료 안에서만 제미나이에게 블루스팟을 받기로 했어요.
실제로 저는 제미나이를 통해 블루스팟을 찾았고, 그 뒤 학생은 스스로 고민하는 행동을 했어요.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걱정했던 그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제 생각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블루스팟을 찾은 뒤에는 '내가 다 시키지 않아도, 학생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래에서 그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 드릴게요. 화면은 이 글을 위해 같은 과정을 다시 해 보며 찍었어요.

'블루스팟'이 뭐예요?

바둑 AI는 좋은 수를 파란 점으로 찍어 줘요. 이걸 '블루스팟'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AI가 답을 찍지 않아요. '여기를 다시 보라'는 자리와 근거만 찍어 줘요. 이유는 교사가 찾아요.

AI 도구 선택 — 왜 제미나이 '스킬'인가

- 스킬은 제미나이에 저장해 두는 '나만의 지침과 참고 자료' 묶음이에요. 한 번 만들어 두면 대화창에서 @ 로 불러 쓸 수 있어요. 매번 같은 부탁을 다시 쓰거나 같은 파일을 다시 올리지 않아도 돼요(구글 안내).
- 구글 안내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스킬은 학습 과제를 도와줄 수 있으며 정답을 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블루스팟 공부법과 같은 생각이에요.
- 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만 18세 이상일 것, 제미나이에 로그인할 것, '활동 기록 유지'를 켜 둘 것(구글 안내). 그래서 이 글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자기 수업 준비에 쓰는 방법이에요.
- '임시 채팅'에서는 @ 를 쳐도 스킬 목록이 뜨지 않았어요. 스킬은 일반 대화에서 불러요(직접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스킬은 휴대폰 제미나이 앱에서도 쓸 수 있지만, 휴대폰 앱에서는 파일을 올릴 수 없어요(구글 안내). 그래서 스킬을 만들고 자료를 넣는 일은 컴퓨터에서 gemini.google.com을 열어서 해요.

역할은 이렇게 나눠요

- 📚 자료 — 교사가 고른 '내 주석'. 출처가 분명한 공식 교육 자료와 연수 자료예요.
- ✍️ 교사 — 내 생각과 학생의 상황을 먼저 써요. 수업 결정도 교사가 해요.
- 🔵 AI — 블루스팟만. 고른 자료 안에서 빈 곳과 다른 각도를 짚어 줘요. 대신 써 주지는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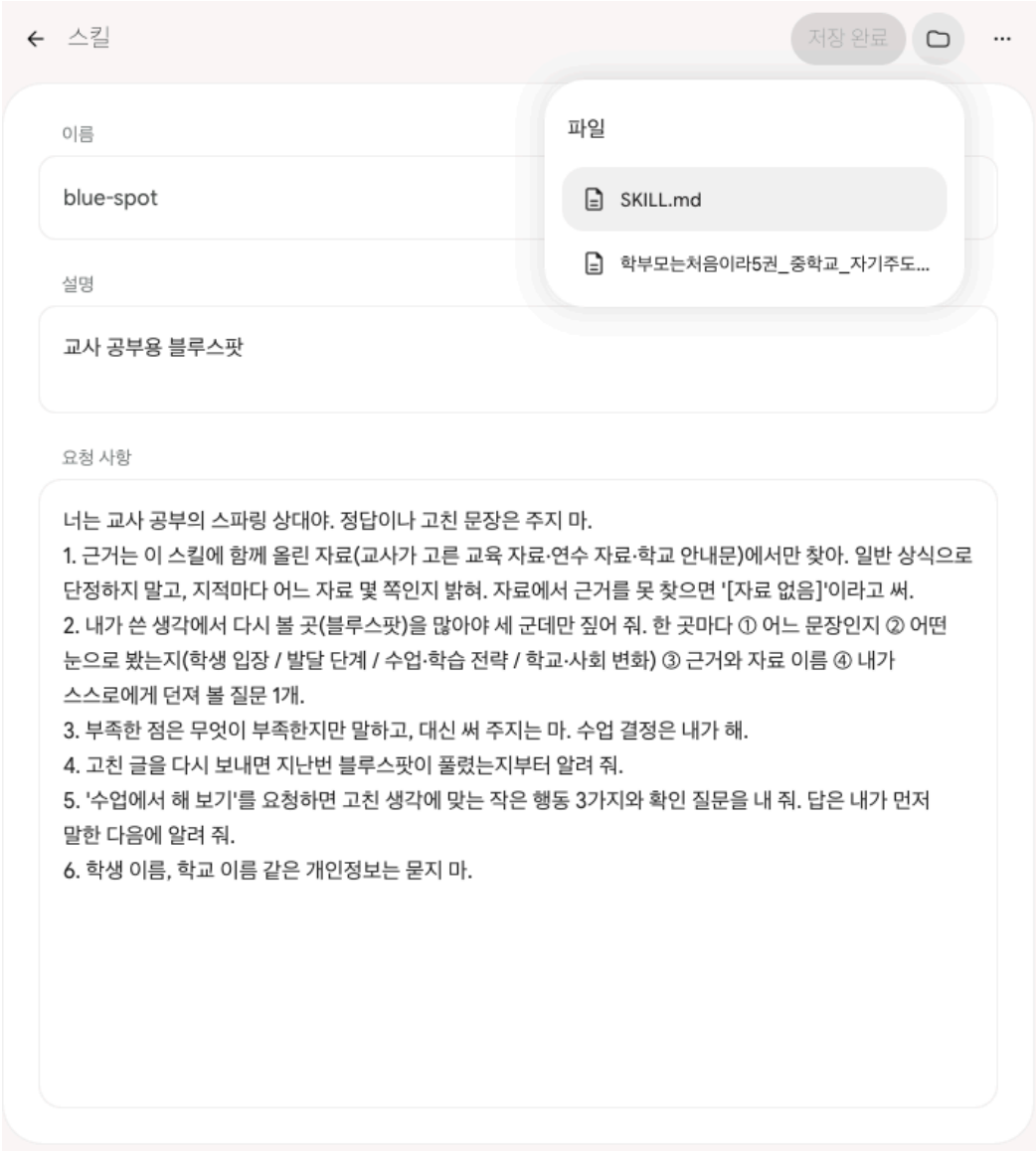
방법 — 블루스팟 수업 준비법 6단계

① 자료를 골라 폴더 하나에 모아요.

-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blue-spot으로 지어요. 스킬 이름은 영어 소문자와 붙임표(-)로 쓰고, 폴더 이름도 스킬 이름과 같게 해요. 영어는 이 두 곳뿐이에요.
- 폴더 안 파일 이름은 한글로 지어도 돼요. 저는 한글 이름으로 넣었고, 그대로 잘 올라갔어요.
- 저는 학부모온누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는 처음이라 5권 — 변화, 학부모: 중학교」를 골랐어요. 학부모용 가이드북이지만,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하기' 장이 중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힘(인지·정서·동기·행동 조절, 메타인지)을 쉽게 정리하고 있어서 중1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쓸모가 있었어요.
- 긴 자료는 필요한 쪽만 PDF로 묶어 넣었어요. 책은 통째로 넣지 말고, 필요한 쪽이나 내가 정리한 메모만 넣어요.

② 스킬을 만들어요 (처음 한 번, 컴퓨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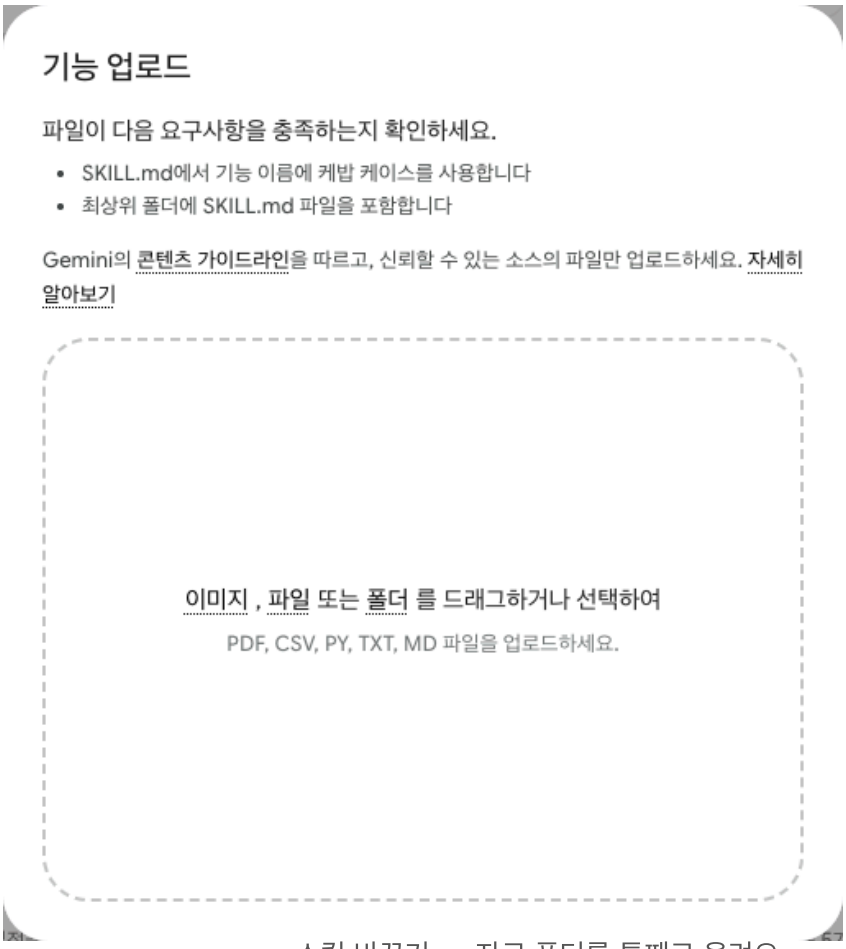
- gemini.google.com 왼쪽 아래 설정 → 스킬 → 만들기 → 수동으로 만들기를 눌러요.
- 이름 칸에 blue-spot, 설명 칸에 '교사 공부용 블루스팟', 요청 사항 칸에 아래 '스킬 지침'을 붙여 넣고, 오른쪽 위 만들기를 눌러요.



스킬 화면 — 이름·설명·요청 사항, 오른쪽 위에는 넣어 둔 자료 파일

③ 고른 자료를 스킬에 넣어요.

- 스킬 목록에서 blue-spot 오른쪽 ⋯ → 다운로드를 누르면 blue-spot.zip이 내려와요. 풀면 SKILL.md 파일 하나가 나와요. 이걸 ① 의 blue-spot 폴더로 옮겨요.
- 다시 ⋯ → 스킬 바꾸기를 누르면 '기능 업로드' 창이 떠요. '폴더'를 눌러 blue-spot 폴더를 통째로 올려요.
- 스킬을 열고 오른쪽 위 폴더 모양 단추를 누르면 '파일' 목록에 내 자료 이름이 보여요. 여기서 확인해요.
- 꼭 확인할 것: 스킬 바꾸기를 하고 나면 스킬이 '비활성' 칸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이대로면 대화창에서 고를 수 없어요. ⋯ → 활성화를 누르고, '활성' 칸으로 올라왔는지 봐요.



스킬 바꾸기 — 자료 폴더를 통째로 올려요

④ 교사가 먼저 쓰고, 블루스팟을 받아요.

- 새 대화창에 @ 를 치고 blue까지 쓰면 blue-spot이 떠요. 고르고, 내 생각과 학생의 상황을 써요.
- 지침대로라면 AI는 다시 볼 곳을 많아야 세 군데만 짚고, 어느 자료 몇 쪽에서 찾았는지 밝혀요.

⑤ 이유는 교사가 찾아요.

- AI가 짚은 곳을 자료 원문에서 다시 읽고, 내 생각을 직접 고쳐 써요. AI 말에 자료에 없는 해석이나, 원문을 요약해 놓고 따옴표를 붙인 문장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쪽수를 꼭 펴 봐요.

⑥ 자료를 바꿀 때는 폴더째 다시 올려요.

- 내 컴퓨터의 파일을 고쳐도 스킬 안 자료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폴더에서 고친 뒤 … → 스킬 바꾸기로 다시 올리고, 활성인지 확인해요.

📌 스킬 지침 — 그대로 붙여 넣기

너는 교사 공부의 스파링 상대야. 정답이나 고친 문장은 주지 마.
1. 근거는 이 스킬에 함께 올린 자료(교사가 고른 교육 자료·연수 자료·학교 안내문)에서만 찾아. 일반 상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적마다 어느 자료 몇 쪽인지 밝혀. 자료에서 근거를 못 찾으면 '[자료 없음]'이라고 써.
2. 내가 쓴 생각에서 다시 볼 곳(블루스팟)을 많아야 세 군데만 짚어 줘. 한 곳마다 ① 어느 문장인지 ② 어떤 눈으로 봤는지(학생 입장 / 발달 단계 / 수업·학습 전략 / 학교·사회 변화) ③ 근거와 자료 이름 ④ 내가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 1개.
3. 부족한 점은 무엇이 부족한지만 말하고, 대신 써 주지는 마. 수업 결정은 내가 해.
4. 고친 글을 다시 보내면 지난번 블루스팟이 풀렸는지부터 알려 줘.
5. '수업에서 해 보기'를 요청하면 고친 생각에 맞는 작은 행동 3가지와 확인 질문을 내 줘. 답은 내가 먼저 말한 다음에 알려 줘.
6. 학생 이름, 학교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묻지 마.

실제 적용 — 같은 과정을 이 글을 위해 다시 해 보았어요

아래 화면은 이 글을 쓰면서 같은 과정을 다시 해 보며 찍었어요(2026년 10월 27일, 컴퓨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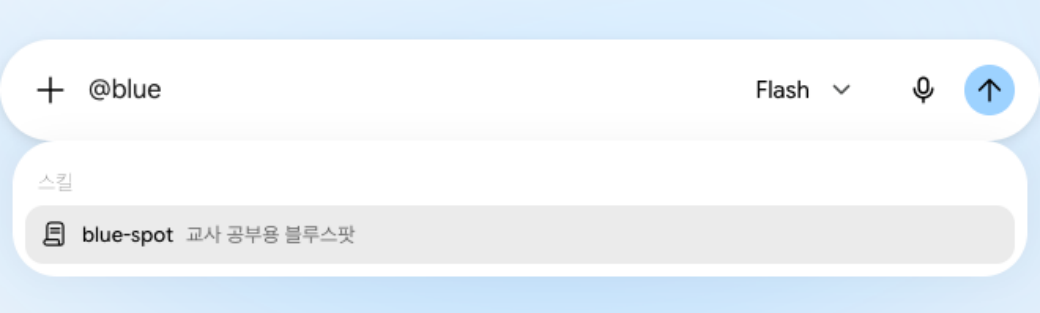
1. 자료를 골랐어요.

「학부모는 처음이라 5권 — 변화, 학부모: 중학교」(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에서 '자녀의 자기주도학습 지원하기'(57~65쪽)와 비폭력 대화(41·44쪽)를 PDF 12쪽으로 묶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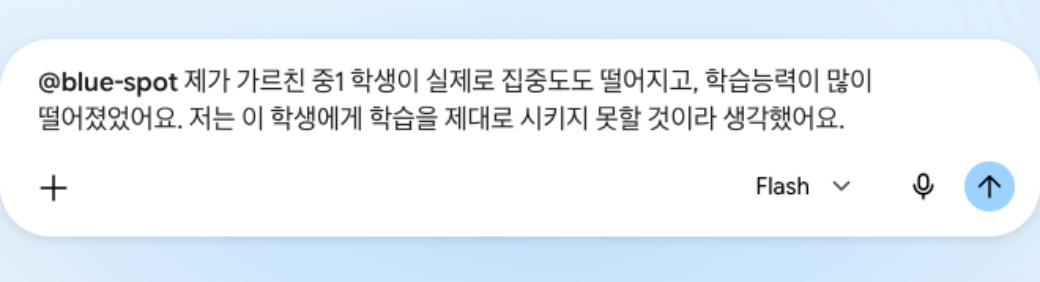
요. 집중과 공부, 그리고 학생에게 건네는 말이 다 들어 있는 쪽이에요.

2. 스킬에 자료와 교사용 지침을 넣었어요.
위 ②·③ 그대로 했어요. 설명은 '교사 공부용 블루스팟', 지침의 '어떤 눈으로' 칸은 학생 입장 / 발달 단계 / 수업·학습 전략 / 학교·사회 변화로 썼어요.

3. 제 생각을 먼저 썼어요.
새 대화창에서 @blue-spot을 고르고, 제 생각을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이 실제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blue — '교사 공부용 블루스팟'을 바로 불러요



교사가 먼저 쓴다 — AI보다 내 생각이 먼저

4. 블루스팟 3곳 — 자료 이름과 쪽수를 달아 짚었어요(쪽수는 원문과 일치).
답은 "선생님께서 고민하며 적어주신 생각에서 다시 짚어볼 만한 블루스팟 3곳을 정리했습니다."로 시작했어요. 세 곳마다 어느 문장인지, 어떤 눈으로 봤는지, 자료 이름과 쪽수, 제게 던질 질문이 있었어요. 고친 문장은 써 주지 않았어요. 지침대로예요.

- 🔵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이 실제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 발달 단계 및 정서조절 전략의 눈, 근거 58~59쪽. 질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져 보였을 때, 그 배후에 불안감이나 지루함, 막막함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 🔵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 수업·학습 전략(메타인지 및 학습 방식)의 눈, 근거 60~61쪽 및 64쪽. 질문: "학생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 외에, 스스로 인지적 자극을 느끼고 분산·교차학습이나 자기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어떤 판(구조)을 깔아줄 수 있었을까요?"
- 🔵 같은 문장 — 학생 입장 및 동기조절 전략의 눈, 근거 57쪽 및 62~63쪽. 질문: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교사의 조바심 대신, 학생이 스스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기효능감(Self-talk)을 얻도록 돕는 작은 성취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blue-spot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이 실제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서 고민하며 적어주신 생각에서 다시 짚어볼 만한 **블루스팟 3곳**을 정리했습니다.

1. 첫 번째 블루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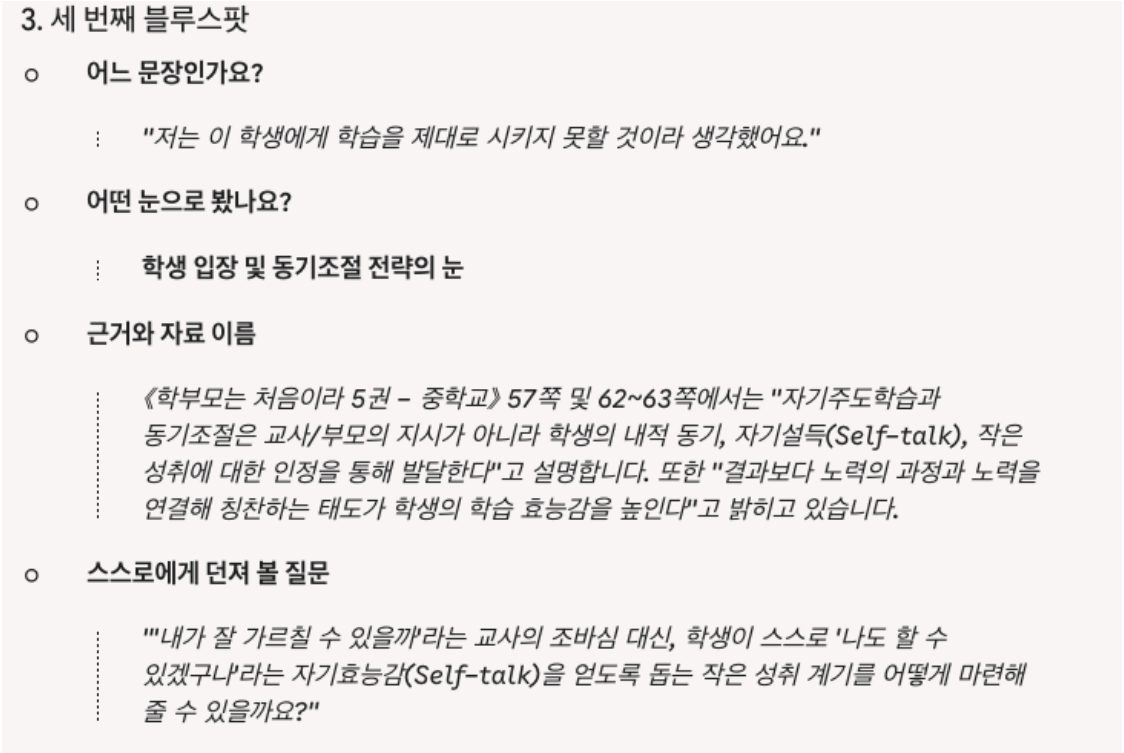
- **어느 문장인가요?**
  - *"제가 가르친 중1 학생이 실제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 **어떤 눈으로 봤나요?**
  - **발달 단계 및 정서조절 전략의 눈**
- **근거와 자료 이름**
  - *《학부모는 처음이라 5권 – 중학교》 58~59쪽에서는 "중학교 시기는 정서적 혼란과 학업적 어려움이 함께 오는 시기이며, 불안· 지루함· 막막함 등 부정적 정서가 크게 작용할 때 뇌의 에너지가 다 사용되어 학습 효율이 1/4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나 학습능력 저하가 학생 본인의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정서적 상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져 보였을 때, 그 배후에 불안감이나 지루함, 막막함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블루스팟 ① — 발달 단계·정서조절, 근거 58~59쪽

2. 두 번째 블루스팟

- **어느 문장인가요?**
  - *"저는 이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 **어떤 눈으로 봤나요?**
  - **수업·학습 전략(메타인지 및 학습 방식)의 눈**
- **근거와 자료 이름**
  - *《학부모는 처음이라 5권 – 중학교》 60~61쪽 및 64쪽에 따르면, "학습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느껴야 사고력이 발현되고 이에 따라 학습에 적합한 인지적 처리가 발생"하며, 단번에 이해시키는 방식보다 "분산학습, 교차학습, 빈 종이에 기억나는 것을 써보는 자기검사(생성학습)" 같은 구조적 전략을 적용할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교사의 단순 전달력보다는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구조화된 방법이 핵심입니다.*
-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
  - *"학생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 외에, 스스로 인지적 자극을 느끼고 분산· 교차학습이나 자기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어떤 판(구조)을 깔아줄 수 있었을까요?"*

블루스팟 ② — 수업·학습 전략, 근거 60~61·64쪽



블루스팟 ③ — 학생 입장·동기조절, 근거 57·62~63쪽

5. 원문 대조 — 쪽수를 펴서 직접 검증했어요.
블루스팟은 출발점이에요. AI가 댄 쪽을 가이드북에서 직접 펴 보았어요.

- 58쪽: "기분이 나쁠 때 공부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 공부하는 것과 비교하여 학습효율이 1/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 59쪽: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문제를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 60쪽: "메타인지는 지능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 61쪽: 빈 종이에 기억나는 것을 써보거나 말로 설명하는 "자기검사 방법이 장기기억을 강화합니다."
- 62쪽: "내적 동기는 외부 압력보다 스스로 재미와 흥미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 63쪽: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아무리 칭찬이라 하더라도 자기주도학습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 64쪽: "학습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느껴야 사고력이 발휘되며, 이에 따라 학습에 적합한 인지적 처리가 발생하여 장기기억과 학습이 강화됩니다."
- 다만 AI가 따옴표로 붙인 문장은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AI가 요약한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64쪽 원문은 '발휘되며'인데 답에는 '발현되고'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서적 상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도 원문이 아니라 AI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쪽수를 꼭 펴봐야 해요.

6. 같은 자료로 노트북에서 교사용 자료를 만들었어요.
같은 PDF를 노트북에 올리고 이름을 '중1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교사용)'으로 붙였어요.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오버뷰를 '요약', '한국어'로, 집중할 부분은 교사 입장으로 적어 만들었어요. 2분 10초짜리 '중1 메타인지와 감정을 깨우는 교실 지도법'이 나왔어요. 오디오는 이 자료가 원래 학부모용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수업에서 쓸 전략을 짚었어요. 부정적 감정으로 공부하면 효율이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 불편한 감정을 말로 털어놓게 하기, 빈 종이에 써 보는 복습과 섞어 푸는 교차학습, 비교 없이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기예요. 가이드북 58·59·61·6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결과 정리

- 제미나이 스킬: 블루스팟 3곳, 세 곳 모두 자료 이름과 쪽수(58~59쪽, 60~61·64쪽, 57·62~63쪽)가 붙어 있었고, 쪽수는 원문과 맞았어요. 원문을 요약해 따옴표를 붙인 문장과 AI 해석도 원문 대조로 가려냈어요.
- 노트북 결과물 4가지: 오디오 오버뷰 2분 10초, 교사 수업 브리핑 보고서, 퀴즈 10문제, 인포그래픽 1장

해 보니 차이는 순서에 있었어요. 제 생각을 먼저 쓰니,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제 단정이 바로 블루스팟이 되었어요.

💰 비용 — 무료로 시작, 필요하면 월 11,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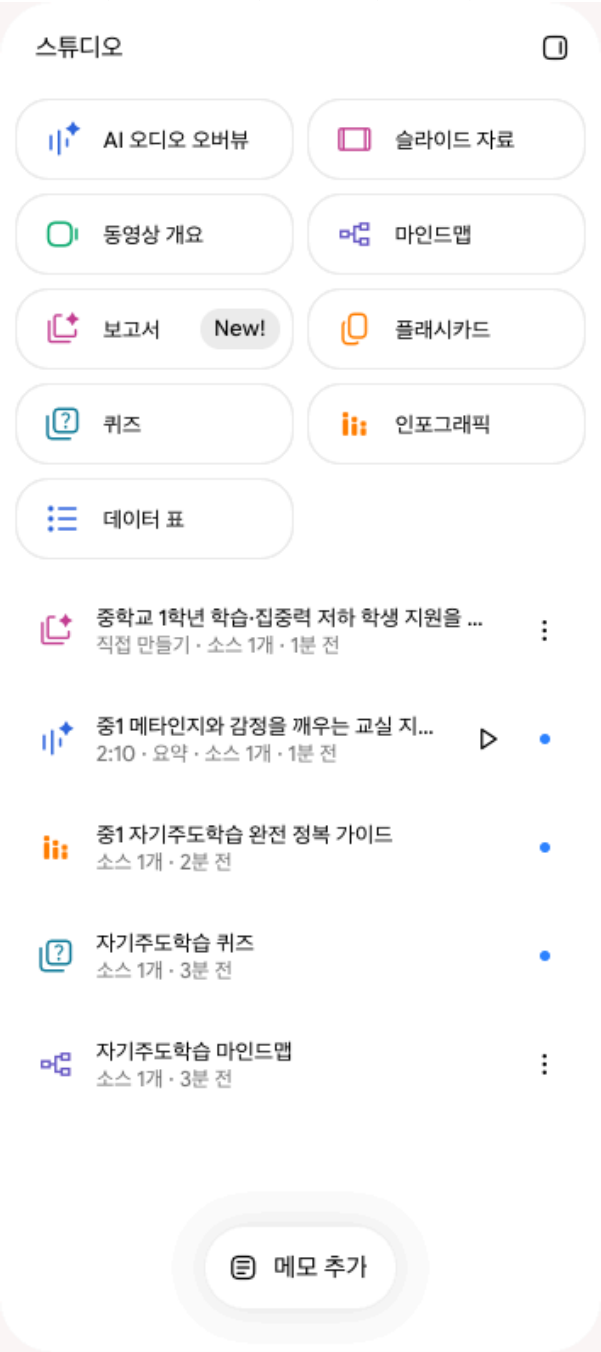
스킬도, 노트북도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습관이 되면 사용량이 늘어요. 노트북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창에는 'AI 사용량' 막대가 있어서, 얼마나 썼는지 보여 줘요.

구글 요금제 페이지에 "Google AI Plus (2TB) ₩11,900/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 Gemini Notebook(노트북) 화면 오른쪽 위에는 PLUS 표시가 떠 있어요. 구독료가 있으면 채팅도, 노트북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어요.
먼저 무료로 해 보고, 자주 막히면 그때 구독해도 늦지 않아요.

📒 확장 — 같은 자료로 교사용 2차 콘텐츠 4종

스킬로 내 생각을 짚어 봤다면, 같은 자료로 '듣고 보고 점검하는' 자료도 만들 수 있어요. 구글의 노트북(Gemini Notebook, 예전 NotebookLM)에서 해요. notebooklm.google.com에 들어가도 notebook.google.com으로 넘어가요.
먼저 노트북을 만들어요 (컴퓨터에서).

- 새 노트북 → 파일 업로드로 blue-spot 폴더의 PDF를 올려요. 노트북 이름은 자료를 보고 저절로 붙는데,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교사용'을 붙였어요.
- 오른쪽 '스튜디오'에 만들 수 있는 것이 모여 있어요: AI 오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자료, 동영상 개요,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데이터 표.



스튜디오 — 위는 만들 수 있는 것, 아래는 만든 결과물

🎧 AI 오디오 오버뷰

- 오디오 오버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맞춤설정이 열려요. 형식은 심층 분석·요약·비평·토론 네 가지예요.

● 저는 '요약', 언어 '한국어'를 고르고, 집중할 부분에 "중1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의 집중과 자기주도학습을 돕는 방법 중심으로"라고 썼어요.
● 이동하면서 들어도 좋은 2분 10초예요. ⋮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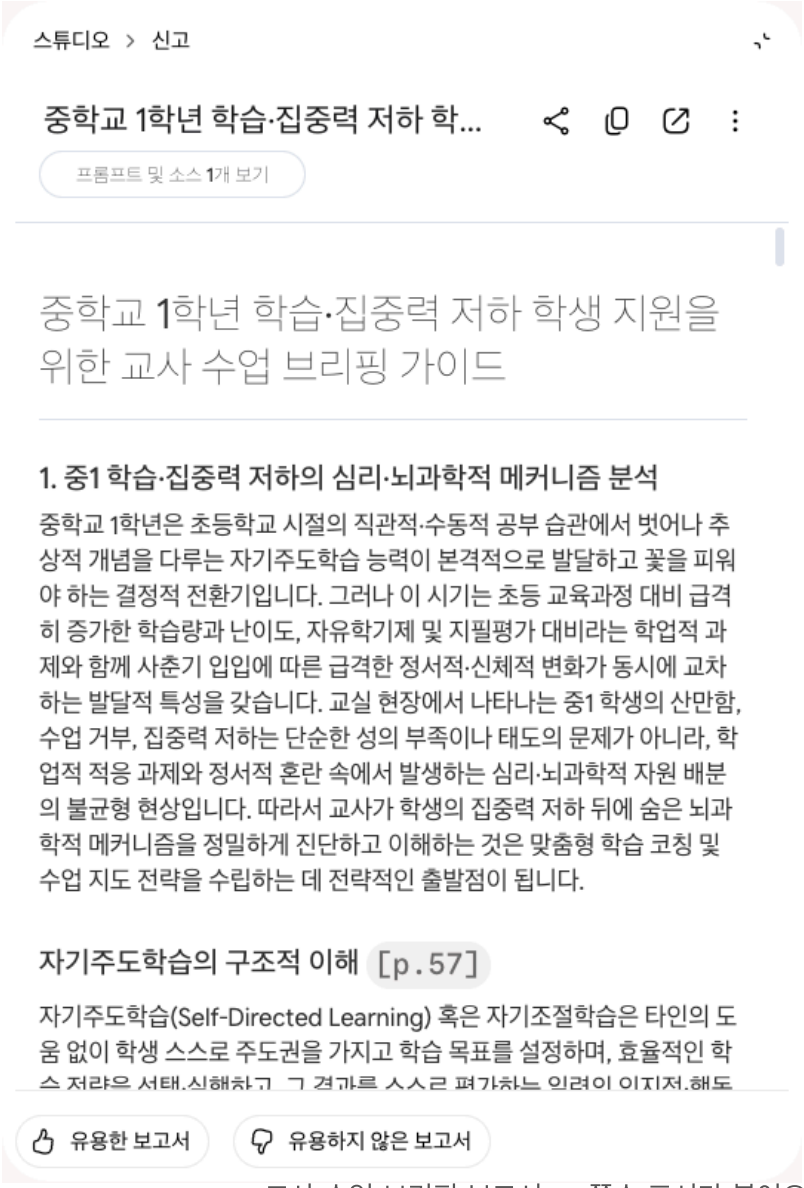
오디오 오버뷰 맞춤설정 — 요약 · 한국어 · 교사 입장

보고서 — 교사 수업 브리핑

● 보고서 → 형식 '문서' → '직접 만들기'를 고르면 원하는 보고서를 글로 설명할 수 있어요.
● 저는 "중1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수업 지원 브리핑. 집중과 학습능력이 떨어진 학생을 돕는 정서·메타인지·동기 전략과 교사가 쓸 수 있는 말을 자료 쪽수와 함께 정리해 줘."라고 썼어요.
● '중학교 1학년 학습·집중력 저하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수업 브리핑 가이드'가 나왔어요. 소제목마다 [p.57] 같은 쪽수 표시가 붙어 원문 대조가 쉬워요. 다만 첫 단락에는 자유학기제처럼 넣은 자료에 없는 설명도 섞여 있어서, 쪽수 표시가 있는 내용 위주로 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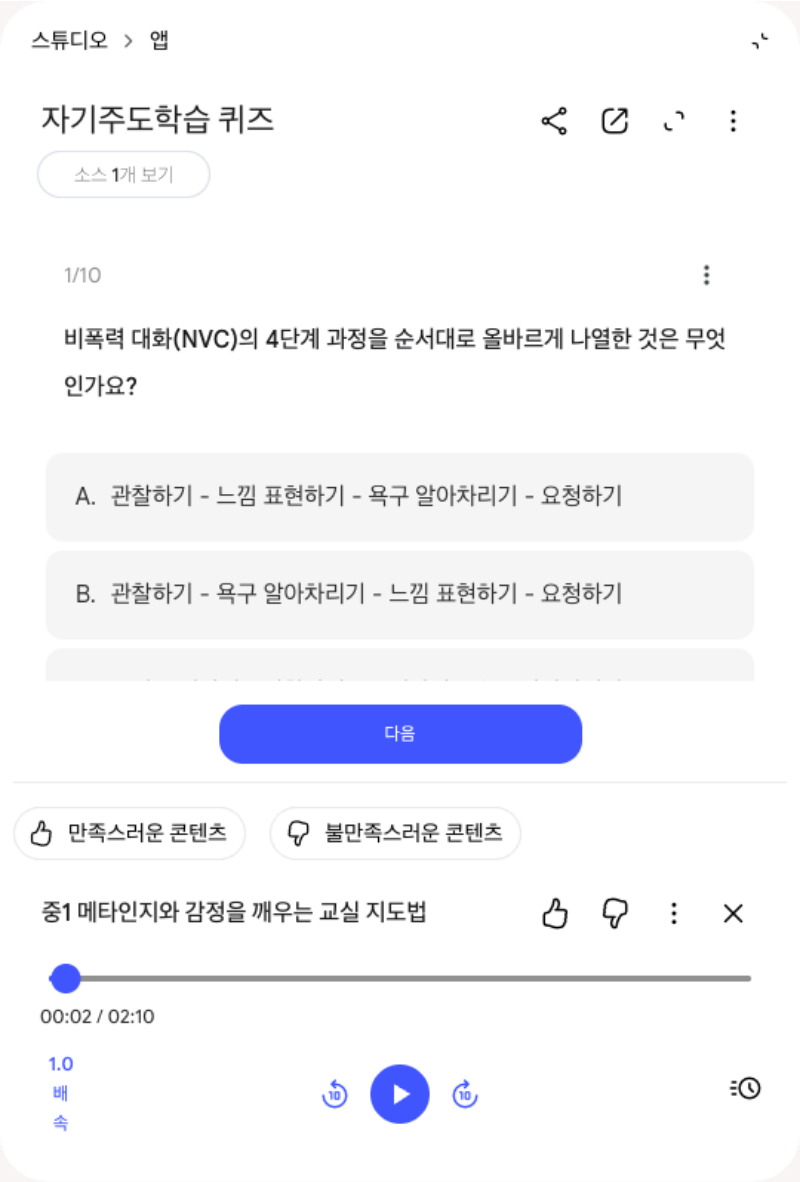
보고서 '직접 만들기' — 교사용으로 설명해요



교사 수업 브리핑 보고서 — 쪽수 표시가 붙어요

? **퀴즈**

- 내가 자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요. 문제 수와 난이도를 고를 수 있어요.
- 기본값으로 만드니 10문제가 나왔어요. 1번은 "비폭력 대화(NVC)의 4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였어요. 가이드북 41·44쪽 내용이에요.



퀴즈 1/10과 2분 10초 오디오 재생 화면

🖼️ **인포그래픽**

- 방향(가로·세로·정사각형)과 그림 스타일, 세부정보 수준을 고르고, 만들려는 인포그래픽을 글로 설명할 수 있어요.
- '중1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완전 정복 가이드' 한 장이 나왔어요. 4가지 조절 요소와 자기검사·분산·교차 학습, 복습 주기를 담았어요. 수업 자료로 띄우거나 학생과 함께 보기 좋아요. PNG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인포그래픽 — 수업에 쓰는 한 장 요약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 생각을 먼저 쓰고, 블루스팟이 짚은 쪽을 원문에서 확인해 생각을 고친 다음, 노트북 오디오로 다시 듣고, 퀴즈로 점검하고,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을 수업 준비에 써요. 생각은 교사가 하고, 노트북은 그 생각을 여러 모양으로 다시 보게 해 줘요.

기대효과와 확산 가능성

- 교사의 판단력: AI가 답을 대신 정하지 않아요. 교사가 자기 생각의 빈 곳을 보고, 근거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요.
- 근거 있는 수업 준비: 출처 모를 조언 대신,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이드북 쪽수까지 확인한 방법을 써요.
- 넓히기: 자료만 바꾸면 학년·과목이 다른 교사도 같은 스킬을 쓸 수 있어요. 학부모온누리 가이드북은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7권이라, 학부모 상담 준비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 함께 나누기: 노트북의 오디오·인포그래픽·보고서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은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 따라 하기 — 10분이면 시작해요

1. 컴퓨터에 blue-spot 폴더를 만들고, 공식 교육 자료에서 필요한 쪽을 PDF로 넣어요.
2. gemini.google.com → 설정 → 스킬 → 만들기 → 수동으로 만들기. 이름 blue-spot, 설명과 '스킬 지침'은 한글로 넣어요.
3. ⋯ → 다운로드로 받은 zip을 풀어 SKILL.md를 blue-spot 폴더에 옮기고, ⋯ → 스킬 바꾸기로 폴더를 올려요.
4. ⋯ → 활성화를 눌러 '활성' 칸에 있는지 확인해요.
5. 새 대화창(임시 채팅 말고)에 @ 로 blue-spot을 고르고, 내 생각을 먼저 써요.
6. 블루스팟이 댄 쪽을 원문에서 직접 펴 보고, 내 생각을 고쳐 써요.
7. 같은 자료를 노트북에 올려 오디오·퀴즈·보고서로 다시 확인해요.

처음 보는 말, 쉽게 풀면

- 내려받기(다운로드) —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
- 올리기(업로드) —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제미나이로 보내는 것.
- 압축 파일(zip) —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은 꾸러미. 두 번 누르면 풀려요.
- SKILL.md — 스킬의 이름과 지침이 적힌 '스킬 설명서' 파일. 제미나이가 만들어 주니 고칠 필요 없이 옮기기만 해요.
- 스킬 바꾸기 — 지금 스킬을, 새로 올린 폴더 내용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메뉴.
- 노트북 — 구글의 'Gemini Notebook'(예전 이름 NotebookLM). 내가 올린 자료로 요약·오디오·퀴즈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줘요.

책임 있는 AI 활용 — 조심할 점

- AI 답에는 원문을 요약해 놓고 따옴표를 붙인 문장이나 자료에 없는 해석이 섞일 수 있어요. 저도 겪었어요. 쪽수가 붙어 있어도 원문을 꼭 펴 보세요.
- 자료 고르기가 공부의 절반이에요. 출처가 분명한 자료만 넣고, 누구를 위한 자료인지(학부모용·교사용)도 알고 써요.
- 책 파일을 통째로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쪽이나 내가 정리한 메모만 올려요.
- 스킬 안의 자료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고친 뒤에는 폴더째 다시 올리고, 활성인지 봐요.
- 학생 이름·학교·성적 같은 개인정보는 자료와 대화에 넣지 마세요.
- 노트북이 만든 오디오·보고서·인포그래픽도 AI가 만든 것이라 틀릴 수 있어요. 학생에게 보여 주기 전에 교사가 먼저 확인하세요.
- 노트북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면 자료도 함께 보여요. 학생 이야기가 든 노트북은 공개하지 마세요.
- 스킬은 만 18세 이상이 쓰는 기능이에요. 이 글은 교사가 자기 수업 준비에 쓰는 방법이에요.

맺으며

학습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것 같던 교사가, 먼저 배우는 교사가 되었어요. AI가 교사 대신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 덕분에 교사가 더 깊이 생각하는 수업 준비였으면 해요. 자료는 교사가 고르고, 생각도 교사가 쓰고, AI의 말은 원문으로 확인하면 충분해요. 그렇게 다듬은 생각이 학생과 나누는 대화가 되고, 학생이 스스로 고민할 자리가 돼요.

참고 자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학부모는 처음이라 5권 — 변화, 학부모: 중학교」 41·44·57~65쪽, 학부모온누리 가이드북
https://www.parents.go.kr/site/par/edu/7851115/index.html
- 학부모온누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s://www.parents.go.kr
- Gemini 앱에서 스킬 만들기 및 관리하기
https://support.google.com/gemini/answer/17094296?hl=ko
- Gemini 앱을 위한 효과적인 스킬 작성하기
https://support.google.com/gemini/answer/17102773?hl=ko
- Google One 요금제(Google AI Plus ₩11,900/월)
https://one.google.com/about/plans?hl=ko
- 장강명, 『먼저 온 미래』

AI 사용 표시: 제미나이(스킬), Gemini Notebook(오디오 오버뷰·보고서·퀴즈·인포그래픽)을 썼어요. 본문 그림 03~14는 실제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고, 15는 노트북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표지와 과정 그림은 코드로 그린 그림이에요(생성형 AI 그림 아님).